

2020-21 인도 연방정부예산안과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김용식 수석연구원, 리서치센터 (sendmail@posri.re.kr)

목차

1. 2020-21 인도 연방정부예산안 개요
2. 2020-21 연방정부예산안 편성 및 지출 내역
3. 산업별 영향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모디 정부, 2월 1일 두 번째 연방정부예산안(Union Budget 2020-21) 발표**
 - 동 예산안은 1년간의 경제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 산업 정책, 투자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경제성장을 하락과 실업을 증가 등으로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단기 부양책 부족으로 시장은 실망감을 보였음
- **2020-21 예산안은 인프라 확대 등 장기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
 - 예산은 전년대비 12.7%를 증액한 30.4 조 루피 책정.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는 3.5%를 설정
 - 예산안 지출의 3 대 축으로 희망찬 인도, 모두를 위한 경제 개발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제시. 사회복지와 여성 및 아이들 대상 지원은 확대하였음
 -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 지원책보다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농업 및 농촌개발과 교통 및 운송 인프라와 교육부문 투자 확대로 장기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
 - 제조업 육성과 Make in India 활성화를 위해 “중간재 관세 인하와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대체와 일자리 창출 의지를 표출
- **인프라 확대와 농촌 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건설과 시멘트산업이 가장 긍정적이며 철강도 수요산업 증가로 성장 견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고속도로, 공항, 철도 투자 확대 등 교통운송인프라 투자와 향후 5년간 102조 루피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이 가장 큰 수혜 업종임
 - 승용차는 농가소득 증가 정책과 개인소득세 인하 등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GST 인하 등이 미반영되어 중립적인 반면 상용차는 인프라 투자확대로 성장을 기대. 전기차 조립완성업체는 부품 수입 관세 인상으로 부정적임
 - 철강은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수요 견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반면 원재료 수입 관세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정적
 - Make in India 실행을 위한 중간재 부품의 수입관세율 인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품산업 동반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2020-21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투자 확대와 농업 및 연관사업 발전 전략과 산업별 정책을 분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제조업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품업체 등과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1. 2020-21 인도 연방정부예산안 개요

□ 연방정부예산안(Union Budget)의 의의

○ 연방정부예산안(이하 예산안)의 의미

- 예산안은 1년간('20.4.1~'21.3.31)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산업 정책, 사회 발전 및 성장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을 발표하는 주요한 연례 행사
- 경제성장을 둔화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산업계는 어느 해보다 세울 인하와 보조금 등 경제 활성화 지원책에 기대를 걸었던 예산안

○ 3대 축을 기본 개념으로 제시한 첫 번째 예산안(별첨 1 참조)

- 희망찬 인도(Aspirational India)는 농업 및 연관산업 개발, 건강·물·위생 강화와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등 "삶의 질 개선"의지를 표명
- 경제개발은 "전국민이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 기반 강화, 인프라투자 확대와 신기술 기반의 신경제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
- 더불어 사는 사회(Caring Society)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여성, 아이들 지원과 사회복지 강화, 문화와 관광지 개발과 기후변화준수를 통해 달성

□ 시장 반응: 경제회생을 위한 단기 회생책 부족 등 실망

○ Sensex는 실망감으로 987.96 포인트(2.43%) 폭락

- 장기자본이득세(LTCG: Long Term Capital Gain) 감세 조치가 빠졌고 경제 성장을 하락세를 돌리기 위한 정부 계획 등의 부재로 실망감 표출
- 경제학자들과 업계 리더들은 "예산안이 장기 관점의 성장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되나 현재의 경기부진을 회복시키기는 불충분하다"는 입장

○ 인도상공회의소(FICCI), 소프트웨어 연합회(NASSCOM) 등은 긍정적 평가

- FICCI는 "경기 둔화 타개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재정적자 목표를 3.5%로 설정"한 것을 높게 평가. 정부 투자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 NASSCOM은 "인도 스타트 생태계의 승리"이라며 다양한 지원책 도입으로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2. 2020-21연방정부예산안 편성 및 지출 내역

□ 예산 편성 내역

○ 총예산은 전년대비 12.7%가 증가한 30조 4,223조루피(약 509조원)

- 경상수입은 9.2%가 증가한 20조루피. 이중 조세수입은 8.7%가 증가하였으며 이자 소득, 공기업과 중앙은행 배당 등을 포함한 비조세수입은 11.4% 증가
- 자본 수입은 20.4%가 증가한 10.2조 루피이며 정부차입과 기타 채무는 3.8%를 증액한 7.96조 루피를 목표

○ 총지출 중 수입지출은 11.9%가 증가한 26.3조 루피 배정

- 국방 예산은 3조 2,305억 루피로 전체 예산의 10.6%를 점유. 모디 정부의 국방부문 Make in India가 탄력을 받을 것임
- 3대 보조금 중 식료품(1조 1557억 루피, 3.8%), 비료(7,131억루피, 2.34%), 석유(4,092억루피, 1.34%)은 전년도의 2조 2,726억 루피에서 54억루피 증가

〈예산안: 수입, 지출 개요(천만 루피, %)〉

	2018-19	2019-20(RE)	2020-21(BE)	증감률(%)
경상수입	1,552,916	1,850,101	2,020,926	9.23
조세 수입	1,317,211	1,504,587	1,635,909	8.73
비조세 수입	235,705	345,514	385,017	11.43
자본수입	762,197	848,451	1,021,304	20.37
융자회수	18,052	16,605	14,967	-9.86
공기업주식 매각	94,727	65,000	210,000	223.08
차입/기타 채무	649,418	766,846	796,337	3.85
총수입	2,315,113	2,698,552	3,042,230	12.74
총지출	2,315,113	2,698,552	3,042,230	12.74
수입지출	2,007,399	2,349,645	2,630,145	11.94
자본계정	307,714	348,907	412,085	18.11
재정적자	649,418	766,846	796,338	3.85

자료: 인도재무부, Union Budget 2020-21, RE(revised estimates, 예산안 추정치에서 지출, 수입현황 반영하여 발표한 수정치), BE(budget estimates)

○ 공기업 주식 매각 목표 2.1조루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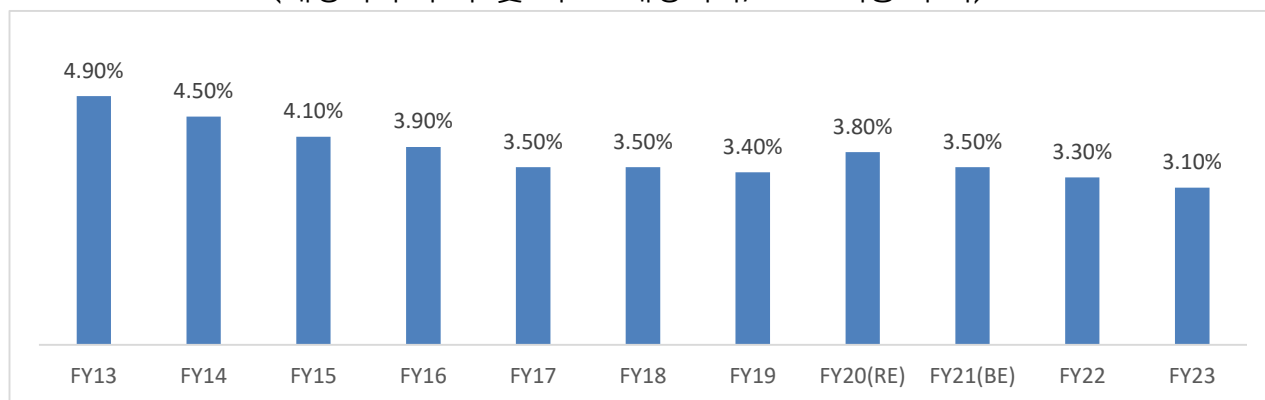
- 정부 세원 확대를 위해 인도항공(Air India) 등 공기업주식 매각 목표를 전년도 6,500억루피(예산안 목표 8천억루피에서 조정된 금액임)에서 2.1조루피로 223% 확대
- 6% 이상의 경제성장을 회복과 다양한 세원 확보로 충분히 회수 할 수 있다고 자신. 경제성장을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목표 미달 시 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 재정적자 목표는 3.5%로 설정 전년 추정치 3.8%보다 완화

○ 재정건전화 3.0% 달성은 23년 이후 달성

- ‘국가신용등급 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2017년 3월말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줄이겠다고 공표
- 지난 2년간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민간투자 감소 보완책으로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폭 확대를 용인

〈재정적자 추이 및 목표: 재정적자/GDP 비중 추이〉



□ 희망찬 인도 달성을 위한 농업 개발, 건강과 위생 강화, 교육 확대

○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농민 지원 확대와 농촌개발 주력

-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농업 및 연관산업 발전에 1조 5478억 루피(전년비 28% 증가)를 그리고 농촌개발에 1조 4439억루피를 투자
- ‘22년까지 농가소득 2배 확대를 목표로 저소득농민 대상의 연금 6천루피 지원 지속과 태양광을 활용한 펌프 설치 지원금 대상을 2백만명까지 확대

○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 증액. 전년비 5% 증가한 9,931억 배정

- 도제제도(Apprentice)를 기반으로 한 150개의 고동교육기관 설립과 도시지역 거주 신규 엔지니어들 대상의 인턴십 기회 확대

- 공공기관과 대학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위제도 도입. 온라인교육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 기대

○ 국민 건강 개선과 깨끗한 용수 공급 및 위생 강화

- 건강(Health) 관련 예산은 6,748억 루피로 전년대비 6%를 증액. 국민건강보호 계획을 기반으로 2만개 이상의 병원 건설 등 국민건강개선에 주력
- 수자원 관리와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한 Jal Jeevan Mission(24년까지 3.5조 루피 투자) 실행을 위해 1,150억 루피 배정

□ 포괄적 성장을 위한 농촌 개발, 인프라구축과 제조업 성장에 주력

○ 신경제 활성화: 광대역통신망 연결망 확대와 혁신적 기술 개발에 주력

- 전지역의 인터넷(2020년말까지 10만개 Gram Panchayat에 Bharatnet 설치) 연결로 IT 기반의 경제 기반 구축
- 다양한 분야의 기술부문을 연결할 수 있는 지식변형클러스터(Knowledge Translation Clusters) 신설과 Start-up에 혜택 제공

○ 교통, 운송 인프라 투자에 1조 6,964억루피 투자(전년대비 7% 증가)

- 2024년까지 100개 신공항 개발, 4개 역사 재개발과 150개 객차운행사업 추진(PPP방식) 등 전국토의 연계성을 강화(별첨 2 참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제시
- 2,500km의 고속도로(highways), 9,000km의 경제회랑 건설과 2,000km의 해안 및 항만 연결도로 건설 등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

○ ‘Make in India’ 실행력 제고를 위한 중간재 관세 인하, 최종재 관세 인상

- 기계 및 전자제품 국내 생산촉진을 위해 부품과 중간재 수입관세 인하(0%까지 확대)와 동시에 최종완제품 관세는 2.5%에서 40%까지 인상
- “휴대폰, 전자제품과 부품, 반도체”부문의 국내생산능력 확대와 자립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인도를 가전 제품의 수출기지로 육성

□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대기오염 개선

○ 여성과 아이들 대상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 전체 영유아 영양수준 개선 프로그램(3,560억 루피) 확대 추진과 농촌 지역 소재 아이들돌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60만대의 스마트폰을 지원

- 영유아 조기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MMR(홍역, 볼거리, 풍진) 감소와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한 TFT 설립 추진
- 문화와 관광객 유치에 위한 여건 개선. 관광촉진을 위해 250억루피 배정
 - 인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Indian Institute of Heritage and conservation 설립을 추진하고 5개의 고고학유적지를 대표 장소로 개발
 -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5개 도시에 특색있는 박물관 신설. Loyhal은 해양박물관, 란치(Ranchi)에는 부족민 박물관을 설립
- 환경개선과 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해 440억 루피 배정
 -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 대상으로 대기오염 개선 프로그램 확대
 - '19년 9월 설립한 재난복구인프라스트럭처(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의 활성화(델리 소재) 등 안전 제고에 집중

□ 배당분배세 폐지와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 개혁도 추진

-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 DDT) 폐지
 - 2009년 도입한 DDT는 인도 유일 제도로 “기업의 배당에 대한 총 배당액의 17%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업계 부담으로 작용
 - 기업 측면에서는 DDT 폐지와 더불어 작년에 발표된 법인세율 인하와 원천징수세율 유예기간 연장 등으로 세부담 완화
- 소득 납부 계층을 7개로 세분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로 소비 증가 유도
 - 연소득 50만에서 150만 루피의 중산층 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5%에서 10% 세율 인하(별첨 3 참조)
 - 소비를 주도하는 중산층 대상의 세율 인하를 통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소비심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3. 산업별 영향: 건설, 농업, 철강 등이 긍정적

□ 건설과 시멘트: 도로, 공항 건설, Housing for All 등으로 가장 긍정적

- 건설: 100개 공항 건설, 도로와 경제회랑 건설, 주택공급 등으로 성장 기대
 - 사업하기 좋은 순위 개선과 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공항 신설과 고속도로 건설 확대 등의 지속적으로 투자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NIP(별첨 4 참조)에서 추진되는 도로 건설(19.6조 루피), 도시 & 주택건설(16.3조루피), 산업회랑(2.99조 루피) 등으로 건설 수요는 지속될 것임
- 시멘트: 주택개발과 각종 인프라 투자 실행으로 건조한 수요 증가 기대
 - 농가소득 증가 정책과 저렴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정책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수요 증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임. 현재 전체 시멘트 수요의 60~65%를 주택부문이 차지하고 있음
 - 전국 도로 연결망 확대를 목표로 하는 도로 신설과 교통 운송인프라 확대 등도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임

□ 자동차: 승용차는 중립적, 상용차는 긍정적, 조립업체는 부정적

- 소비 진작을 위한 GST 세율 인하 등 직접 지원책 없어 중립적
 -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반등시킬 수 있는 GST 세율 인하나 정부 지원책을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회생 지원책이 없어 실망스러운 예상안으로 평가
 - 도로, 항만, 항구 등 인프라투자 확대에 대형 상용차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개인 소득세 인하로 인한 중상층의 소비 증가 등은 그나마 긍정적임
- CKD, SKD, CBU 관세 인상으로 국내 완성차 조립업체들은 부정적
 - 전기차 부품을 수입하여 인도에서 조립을 해왔던 완성차 업체들은 CBU 수입(25%에서 40%로 인상)과 SKD 수입(15%에서 30%로 인상) 관세 인상으로 생산원가 상승난에 봉착. 현지 부품생산 일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Make in India”의 장기 추진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부품산업 투자 증가를 기대
 - 인프라 확대와 건설 수요 증가로 중대형 상용차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

□ 농업 및 연관산업: 예산 증액, 지원 확대 등으로 긍정적

○ 농업 발전과 원예, 어업 및 축산부문은 긍정적(16개 핵심활동 발표)

- 농민 대상의 신용융자 확대, 태양광 펌프 설치비 지원, Kisan Credit Card Scheme을 통한 사회보장확대(카드소지자 사망& 영구불구시 5만루피 지원 등)
- 농산물 운송 과정의 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냉동저장 능력 계획 등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산물 생산과 수출 확대, 우유생산 2배 확대 추진

- 가두리양식과 김양식 등 관련사업 육성으로 2023년 3월말까지 생선 생산 2천만톤 달성과 2025년 3월말까지 1조루피 수출 목표 달성 등
- 우유가공능력을 현재 5350만톤에서 2025년까지 1.08억톤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인공수정 비율을 현재 30%에서 70%까지 확대

□ 철강: 인프라, 주택건설 등 수요 기반 확대로 긍정적

○ 국가가스연결망 확대 외에도 향후 5년간 102조 루피를 투자할 NIP 추진

- 가스공급망을 현재 16,200km에서 27,000km로 확대하는 National Gas Grid 추진으로 판재류 업체들의 공급 기회가 증가할 것(현재 7,000km 건설 중)
- 2019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인프라파이프라인(NIP) 추진과 철도인프라 기능 개선 등의 본격 시행으로 봉형강과 판재류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임

○ 한편, 철광석과 니켈 등 핵심 원자재의 수입관세 유지는 부정적

- 석도강판 수입 관세를 기존 5%에서 10%로 인상하면서, JSW, Tata 등 국내 생산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철광석 수입관세 인하와 Ferro-Nickel 수입과 STS 고철 수입에 부과되는 2.5% 관세 폐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불만 요인

□ 휴대폰과 가전제품업계는 부품관세 인상으로 국내제조 활성화 기대

○ 가전제품의 제조기지 육성을 목표로 각종 부품 수입관세 10% 인상

- 휴대폰, 가전 및 반도체 패키징 부문의 Make in India 육성과 수출기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 확대 적용
- 가전제품과 휴대폰 제조용 각종 부품들의 수입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

- 국내 부품산업 유치와 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Global Value Chain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천명

□ 신재생에너지, 물류 부문은 긍정적

○ 기후변화협약 준수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능력 확대

- 발전사업 신규 진출 기업의 법인세 혜택(15% 적용)과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 중 오염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쇄를 추진
- 풍력(26.7% 증가, 130억루피), 태양광(20.2% 증가 215억 루피) 예산 확대와 태양광을 활용한 펌프공급 지원(70억 루피 신설) 등으로 투자 증가 기대

○ 전국 연결망 확장 사업으로 물류 부문은 긍정적

- 신규 경제회랑 투자 및 내륙수로와 해안선 연결 등 다양한 방면의 전국 연결망 확장으로 물류 부문의 경쟁력 제고 유도. 현재 1,600억달러 정도인 물류 사업은 중기적으로 8~10%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국가물류정책(National Logistics Policy: NLP)과 NLP Action Plan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금융부문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지원책 부족으로 다소 부정적

○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은행건전화 방안 미흡

-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영은행들 대상의 신규 자본투자 계획이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빠지면서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은행예금 증가를 위한 예금자 보험(Depositor insurance) 범위를 10만 루피에서 50만루피로 확장하면 은행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요구한 신용 지원(credit availability) 확대 없음

- 부동산 판매 증가를 위해 개발업자들이 기대한 신용 지원확대 정책이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판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중산층 그룹의 개인소득세 인하와 Affordable Housing에 대한 혜택 1년 연장 등으로 그나마 수요 견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4. 시사점

□ 2020-21 예산안은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주력

- 경제성장을 둔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단기 지원책을 기대했던 산업계는 실망. 인프라 및 복지 확대 등 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특징
 - 단기 지원책이 아닌 생활의 편리함 제고라는 목표 하에 희망찬 인도(삶의 질 개선), 모두를 위한 경제개발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천명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제고를 목표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부문 투자 확대와 중간재 관세 인상 등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대를 유도

□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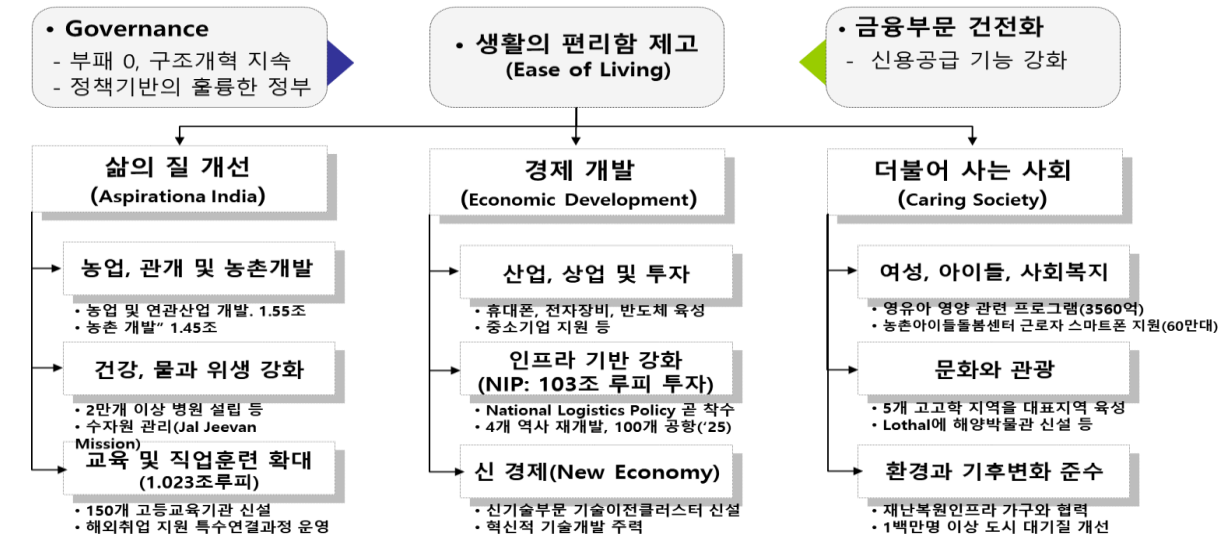
- 철강 수요 산업 기회 포착을 위한 현지 맞춤형 전략 필요
 - 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와 NIP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수요가에 맞는 제품 공급 전략 수립이 필요
 - 전가구 수돗물 공급, 전국 가스 그리드공급망 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강 수요 증가를 선점하기 위한 고객밀착 관리 및 공동제품 개발을 추진
- “Make in India” 전략을 활용하고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 제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정부의 5조 달러 경제달성과 수출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입대체와 국내제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노력이 필요
 -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진출과 현지 업체들에 대한 적정 기술지원을 통한 수평적 생태계를 육성하고 물류업체등과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 노력이 필요
- 건설,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고성장 부문 진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진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점검과 동시에 향후 5년간 추진될 국가인프라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 건설, 에너지 및 물류 부문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강점 결합을 통한 공동진출 방안 모색으로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 제고를 꾀하는 것이 필요

- 리스크 감소와 경험 축적을 위한 점진적 확대와 현지업체와 협력전략 추진
 - 신(新)산업이나 처음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면 먼저 소규모로 진입한 후 경험과 지식 축적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범위를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
 - 현지 상관습 습득과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유통망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진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첨]

1. 인도 예산안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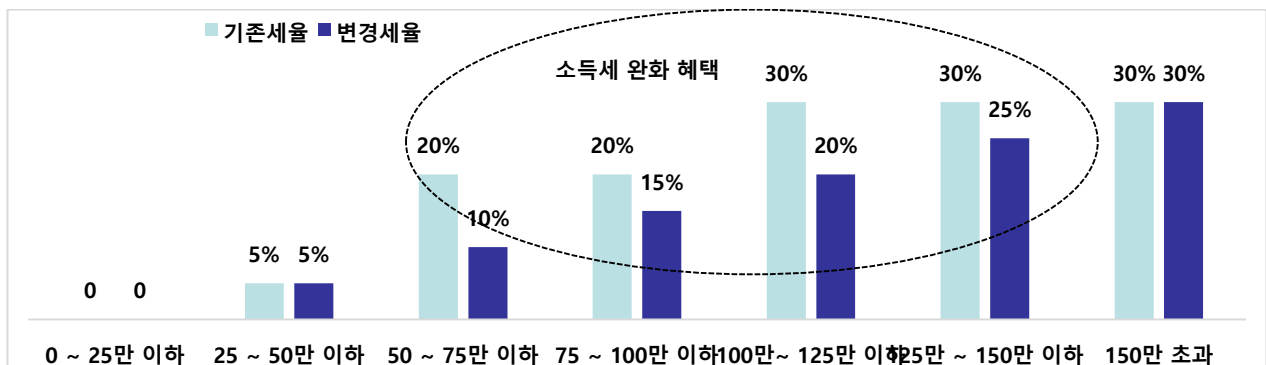


자료: "Prominent Themes of the Budget", 인도재무부

2. 주요 부문별 지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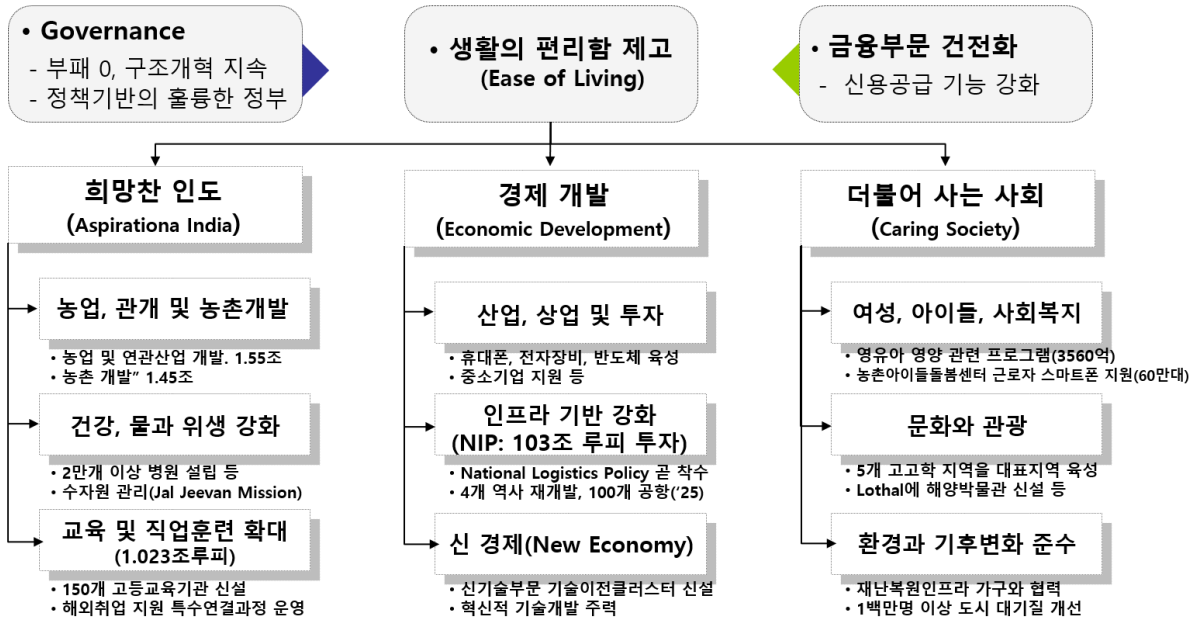
부문	세부 내역
농업	- 농업 및 연관산업(1조 5,478억루피): 관개(irrigation)농사 지원, 수산업(가두리 양식, 김 양식 등) 발전 - 태양광 펌프 설치 지원(200만 농민으로 확대)과 황무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등에 활용 - 냉동저장설비 지원: 철도(Kisan Rail, 냉동화물칸 이용)와 항공을 연계한 냉동저장 능력 확충으로 유통중 손실 감축
교육 & 직업훈련	- 교육 부문(9930억 루피)과 직업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훈련(300억 루피) - 150개 고등 교육기관 설립, 도제제도를 기본으로 학 학위과정, 21년 3월말까지 설립 - 온라인 교육 부문도 활성화
교통운송 인프라	- 도로, 항만, 공항, 경제회랑 건설, 역사 개발, 철도 관련 인프라 설립 등에 전년보다 5.6% 증액된 1조 6,964억루피 투자 - 4개 역사 재개발, 150개 객차운영 사업을 PPP로 추진. 주요 관광지와 고속열차(Tejas type Train)를 추가로 연결 - 신공항 100개 이상 신설(24년까지)과 이를 감안하여 항공기 운행대수는 현재 600대에서 1,200배대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도로는 2,500km의 고속도로, 9,000km의 경제회랑, 2,000km의 해안도로와 육지항로 개발 및 연계성 강화
복지, 수자원, 위생 부문	- 6,900억 루피가 배정되었으며 이중 640억 루피는 전국민건강보호계획(PMJSY)에 투자 - 화장실건설 등 Clean India(Swachh Bharat Mission)에 1,229.4억 루피 투자 - 수자원 관리와 수돗물 관리를 위한 Jal Jeevan Mission(총 3.6조 루피 투자) 실행을 위해 년에 1,150억 루피 배정
산업, 상업 및 투자	- 상업 및 산업 개발을 위해 총 2,722.7억 루피를 투자(전년대비 5% 감소) - 5개의 스마트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가와 National Technical textiles Mission을 곧 발표할 예정
문화 및 관광	- 관광 유치 및 국내 여행자들의 관광촉진을 위해 250억 루피 배정 - 주별 특성을 감안한 5개의 특화된 박물관 설립 등

3. 개인소득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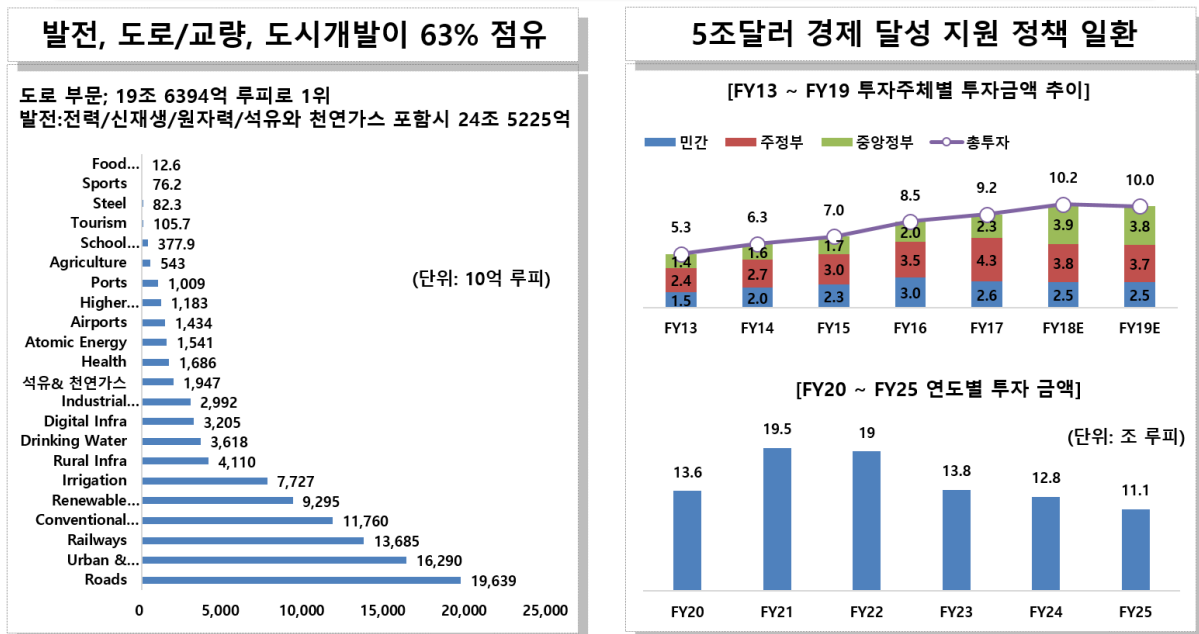
4. National Infra Pipeline(NIP)

생활의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한 3대 축 중심으로 예산안 편성



자료: "Prominent Themes of the Budget", 인도재무부

5년간 102조루피(1.4조달러) 투자, "삶의 편리성 제고, 성장 추진, 국민열망 부응"



자료: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Government of India, 2020.

[참고자료]

[보고서]

CARE Ratings Limited, “Analysis of Union Budget 2020-21”, 2020.2월

Deloitte, “Union Budget 2020,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s”, 2020.2월

KPMG, “India Union Budget 2020, point of view”, 2020.2월

Ministry of Finance, “Union Budget 2020-21”, 2020.2.1일

PwC, “Union Budget 2020-21, Rebuilding Momentum”, 2020.2월

[언론]

Anil Padmanabhan, “Budget 2020: Long on vision,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LiveMint, 2020년 2월 1일자

Anulekha Ray, “Budget 2020 highlights: New income tax slabs, big push for infra, transport”, LiveMint, 2020년 2월 2일자

Dibyanshu, “Budget 2020: Infrastructure is crucial to govt’s ‘Economic Development for All’ goal”, Financial Express, 2020년 2월 4일자

“Budget 2020 Highlights: This is what you got from Sitharaman’s 45-page Bahi Khata”, The Economic Times, 2020년 2월 7일자

“Impact of Budget proposals on sectors”, The Economic Times, 2020년 2월 2일자

Indvjal Dhasmana, “Budget 2020: Nirmala Sitharaman uses fiscal space to spur the economy”, Business Standard, 2020년 2월 1일자

LiveMint, “Budget 2020: Sectoral proposals and the desired impact”, LiveMint, 2020년 2월 1일자

Malyaban Ghosh, Utpal Bhaskar, “Budget 2020 proposes hike in EV import duty to promote domestic manufacturing”, LiveMint, 2020년 2월 1일자

Sanjay Mookim, Nafessa Gupta & Shikha Gupta, “Budget 2020: Was the market expecting too much?”, Financial Express, 2020년 2월 4일자

Sundar Sethuraman, “Sensex, Nifty nosedive nearly 2.5% as Budget fails to enthuse investors”, Business Standard, 2020년 2월 7일자